

법무부는 전맹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

- 법무부장관은 지난 4. 21. 전맹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 시험 합격 축하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진영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시험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.
- 김진영 변호사는 ‘전맹 시각장애인’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, 사례형 과목은 1.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, 본인의 경험상 지문 길이, 난이도,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.8배(↓), 사례형 과목은 1.7배(↑)로 조정하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.
- ※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등급 등에 따라(일률적인 적용 아님) 시험시간 연장, 보조기기 사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법무부는 소중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 건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,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전맹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-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,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, 각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「법조인 선발·양성 개선 TF」 논의, 다른 국가시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.
- ※ 참고로 법무부는 2023. 1.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모든 중증 장애인을 전원 희망 시험장에 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- 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법무실 법조인력과	책임자	과 장	이준호 (02-2110-3241)
		담당자	검 사	이재인 (02-2110-3237)